

## 충남도, ‘실국장책임경영(Semi-CEO)제’ 평가계획 확정

- 주요업무·도지사공약 등 11개 항목 평가, 오는 12월 결과 공개 -
- 道政을 단순관리단계에서 책임경영단계로 전환하는 계기 조성 -

충청남도가 “성과중심의 새로운 道政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해 全國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경영(Semi-CEO)제’에 대한 평가계획이 민선4기 도정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道政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최종 확정됐다.

실국장 책임경영(Semi-CEO)제는 道知事의 권한인 ‘人事제청권, 조직운영권, 정책집행권’ 등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실국장 스스로 소관업무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동안 ‘실국장 워크숍 개최(2회), 실국주무 및 평가업무 담당토론(3회), 혁신분권연구단 등 전문가 자문(4회)’을 받아 실국의 기능 차이에 따른 평가의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평가대상은 年初 기자회견을 통하여 道民에게 약속한 책임경영제 업무(69개)중심에서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현안사항관리, 혁신활동, 부서간 협조’ 등 道政 全분야로 확대 ‘4개 관점, 11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道政 곳곳의 중요한 부문을 빠짐없이 점검, 道政 성과를 倍加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 ‘강한 충남’ 건설의 기반을 강화토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사업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밀진단 개선안을 마련토록 ‘정량·정성평가, 현장 확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다양화 하고 평정방식은 평가업무담당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평가지표를 개발, 11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3등급(A·B·C) 설정하였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외부환경 등에 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도지사·행정부지사’가 노력도에 대하여 정성평가로 조정점수(가점)를 부여토록 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고

평가단은 道 공무원과 道政에 관심이 많고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0명(記者포함)내외로 구성(단장 : 행정부지사/민간인 공동), 3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11월부터 12월 까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종합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11개 항목에 대하여 실국장(10명)의 업무실적을 3등급(A·B·C)으로 오는 12월에 발표, 실국장 人事에 반영하고 관점별 주요성과 및 문제점 등은 별도로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간 2008년도 道政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Semi-CEO제’ 시행이후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따라 3S(Simple, Speed, Slim)행정추진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道政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Semi-CEO제’가 ▲道政을 관리에서 리더십으로 전환 ▲적절한 부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부문별 책임경영자 양성 ▲道民(고객)만족 중심의 실국별 비전 수립 추진 등 ‘성과중심의 道政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되어서 ‘韓國의 中心, 강한 忠南’ 실현의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Semi-CEO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12개 분야)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 제도를 적발위주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중앙과 연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실효성 방안 마련과 2008년부터 평가적용 대상을 직속기관장까지 확대검토 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명실공히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성공모델’로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제27회 금산 인삼축제 열려

- 9월 7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 주제로 -



충청남도와 금산 인삼선양위원장(위원장 박동철)은 7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최민호부지사, 박동철 금산군수 등 유관기관 단체장, 관광객 및 군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제27회 금산 인삼축제 개막식을 갖고 16일까지 10일간 다양한 축제행사가 펼쳐졌다.

가 펼쳐졌다.

개막식은 대북타고(태고의 울림)와 판굿(어울림 마당)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김호택 금산 인삼축제 집행위원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으며, 식후행사로 설운도, 인순이, 이용 등 인기가수 다수가 출연 하는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금산 인삼축제는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인삼을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1981년 10월에 처음으로 인삼제를 개최, 인삼 종주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회 연속하여 문화관광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은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금산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작년 못지않은 수준으로 준비하였으며, 또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를 선발하는 'IFSA세계스트롱맨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년에 비해 국제성 강화는 물론 각종 체험행사도 확대·운영하였다.

이번 축제기간동안 웰빙 시대에 걸맞는 건강체험이벤트를 비롯하여 금산인삼관·주제관·건강체험관으로 이뤄지는 기획관 및 체험공간은 인삼엑스포 수준에 맞춰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관광객들의 체류를 위한 야간 이벤트로 난타공연을 비롯하여 인기가수 초청 추억의 7080콘서트,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경연대회,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채훈 충남 정무부지사 취임



충남도의 첫 '경제부지사' 인 채훈(56·사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취임해 9월 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한 채 부지사는 2000년 프랑크푸르트 무역광장 재직시에 독일의 대한민국 투자유치로는 최고액인 16억 달러를, 지난 2004년에는 경영혁신본부장으로서 코트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채 부지사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며 “투자유치의 새로운 그물을 짜겠다. 투자유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내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충남도의 통상과 투자 유치 등 경제 업무를 전담한다.

## 영화배우 정준호씨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위촉

- 백제문화제 홍보활동 가시화 -



충남도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영화배우 정준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백제문화제 홍보에 나섰다.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완구 도지사는 영화배우 정준호씨에게 위촉패 및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축하 인사말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주와 부여에서 처음으로 통합 개최하는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준호씨 같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적극적인 백제문화제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 충청권 경제협의회 출범

- 충청 번영 위한 양보와 상생발전 도모 -



박성호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 지사는 8월 27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충청권경제협의회 구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협의회 구성을 선언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충청권경제협의회는 기업인과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 협의회로 다음 달 말경 창립총회를 열고 경제협의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 45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광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광역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덕특구 선도사업 추진 △해외 사무소 공동 활용 및 해외 수출 마케팅사업 공동 추진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현안인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제정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대전 유치와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조기 건립,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기 해제, 국방대 논산 이전 등도 서로 돕기로 했다.

중부권 원자력의학원의 대전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자체별 1곳 이상 설치, 댐 주변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이 결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3개 시도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충청권을 홀대할 때에는 대선과 연계해 충청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충청권이 힘을 합쳐 공통 및 개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보령 '생생꿈마을' 충남도에 기부

- 복지재단 무궁화 '생생꿈마을' 부지 103,720㎡ 등 42억원 상당 -



사회복지재단 무궁화(이사장 전영한)가 지난 2005년도 개원한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을 8월 17일 충남도에 기탁해 화제다.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는 전영한 대표이사가 지난 1993년 소 50두, 부지 103,720㎡, 건물 2,427㎡ 등 사재 42억 원 상당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으로써 당시에는 선뜻 믿기 어려운 거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재산평가액이 73여억 원에 이른다.

무궁화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없이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으로 현재 운영중인 생생꿈마을(실비노인요양시설 2,093㎡)을 건립하여 지난 2006. 4. 1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보살펴 오고 있으며,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활용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2006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 시설물의 증축과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한편, 매년 사재 2~3억 원을 투자하여 조경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경재산액만도 32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복지시설을 건축, 위탁하는 사례는 있어도, 법인시설을 행정기관에서 기부 받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며 복지사업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완구 충남지사, 유럽·UAE 순방 귀국보고회

- 스페인 CEPSA社와 11억불 MOU체결 -
- UAE IPIC社와 22억불 투자유치 상담 -



이완구 충남지사는 민선 4기 출범 후 외자를 60억 달러 유치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웠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5억 달러와 금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33억불 상당의 MOU체결과 투자에 합의를 이끌어내 이미 50억 달러 상당의 외자유치에 이르렀다.

7월 19일 오전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그리스, 터키 및 UAE 순방활동 기간 동안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순방 귀국보고회를 갖고, 이와 같은 외자유치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충남도는 스페인 제2의 석유그룹인 CEPSA社와 현대오일뱅크 대산단지내 BTX생산라인 증설에 총11억불(외국인직접투자 9.35억불)을 투자키로 까를로스 회장과 MOU를 체결했고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UAE의 국영투자전문회사인 IPIC사 투자담당사장 카뎀 알 쿠바이씨와 단독 회동을 통해 2011년까지 22억불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스페인 CEPSA와의 투자협정 체결은 스페인 기업이 한국 내 첫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투자시기가 앞당겨져 대산지역이 국내 최고의 석유화학단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IPIC사의 투자가 완료되는 2011년에는 최고의 효율성을 보유한 정유사로 중국·동남아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PIC사는 석유화학분야 이외에도 투자에 가치가 있는 분야라면 추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다른 투자가들도 소개해주겠다는 적극적인 표명으로 충남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금년 12억불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국 우수자본을 겨냥한 중국 투자설명회 개최, 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가시화, 오픈 티켓제도 운영 등 투자유치목표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번 투자유치단은 이외에도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청을 방문하여 당진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 현대자동차 터키법인 방문하여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터키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을 개진하였으며, 두바이 개발 건설현장시찰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안면도 관광지개발 등 도내 신도시, 관광지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상해사회과학원과 국제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

- 환 황·해권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충남의 동북아교류활성화 기대대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金容雄))은 중국상해사회과학원(원장 왕영화(王榮華))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연구를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9월 14일 선문대학교에서 “국제 학술·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지역 지역정부간 상생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공공학회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겸해 성사되었는데, 향후 충남의 동북아 지역 국제교류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두 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장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두 지역의 연구원간 공동협력은 앞으로 국제적 공공행정협력이란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공동 연구수행 및 국제세미나 개최 ▲각종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 상호 제공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Network 구축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

앞으로 두 연구기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협력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국상해사회과학원은 국제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상해(인구 1,700만명)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 협력, 지역개발, 지역경제, 법, 철학, 역사, 관광 등 인문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700여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중 하나이다. 또한 충남의 해외통상교류를 위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상하이기도 하다.

## 충남도, 공공디자인 본격 도입

- 디자인의 가치 확산과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고유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9월 7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명품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공디자인 도입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서 충남의 공공디자인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 그리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신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적 영역 디자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며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문화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척도로 공공시설이란 잣대가 중요시 되고, 그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자체에서 지역산업혁신과 新산업 창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마련 등 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수립했지만, 디자인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부재 등 효율적인 투자와 통합성이 결여되어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하면서 “충남에서도 도민의 삶을 질

을 향상시키고 독창적 정체성 확립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세부정책 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충남의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신생도시에 획기적인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을 지닌 창조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디자인 사각지대부터 철저히 살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병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팀장은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 도쿄의 ‘룻본기 힐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서울 ‘청계천’ 등 디자인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공공디자인 전문 교육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의 일관된 디자인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일반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자인 적용에 관한 총괄 기획 및 협의,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전담 조직을 구성함과 동시에 지자체 내·외부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디자인실무 협의기구 및 디자인 심의·자문 위원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공공디자인은 책자의 표지에서부터 간판, 거리, 도시개발 등의 행정전반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매우 가치 있는 공공재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행정의 한 분야로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와 활용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 한데 뭉쳤다

-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등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 -
- 충남 도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 -



충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이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정의 선도 기능을 수행할 공동발전연구단을 구성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는 개별 연구기관간의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을 뛰어 넘어 충청남도 산하 연구기관의 특화된 장점을 모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8월 28일 오전 11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산하 연구기관 학술·연구 교류 협약식”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충남도 혁신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연구기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도정에 개별 연구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 특성을 살린 공동연구는 충남도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공동발전연구단 구성 이외에도 ▲공동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도 및 시군 현안에 대한 공동T/F팀 구성 ▲연구 인력의 상호 지원 ▲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이 담겨 있다.



이들 6개 연구기관은 앞으로 실무진 구성을 거쳐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은 “도정의 혁신적 정책개발을 위한 도 산하 ‘싱크 탱크’(Think Tank)간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협약 체결 이후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모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의 상생협력과 갈등해결 위해 손잡아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사회갈등연구소' 간 MOU 체결 및 워크숍 개최 -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창립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권경득, 이하 “포럼”)이 8월 20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가진 제2차 워크숍에서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와 MOU를 체결, 갈등 관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호 지식·정보 공유와 교류협력 및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연구 인력·시설·정보 등 자원의 공동 활용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포럼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정보 공유 ▲다양한 교육활동 및 워크숍 상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충청지회 공동 주관으로 행자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충남 시·군 갈등관리 담당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MOU 체결과 함께 ‘상생협력·갈등관리와 사회자본의 육성’이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진 박사(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척도로서 사회적 자본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



역의 사적이익을 극복하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며, 지방정부가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

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욱 교수(배재대학교)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사회자본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자본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평등 지향적인 복지 정책 ▲주민의 사회 및 정치 참여 장려 ▲도시계획 및 공동체 디자인에 주민 간 접촉을 증대 ▲마지막으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개인적인 좁은 의미보다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상호주의 규범 육성, 전통적 농촌과 신성장 도시 등의 특성에 맞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병희 공주대 교수는 “사회자본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협력의 질과 양을 형성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동체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도 있으며, 이는 대체로 지연, 혈연, 학연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이용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포럼인 만큼 충남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발전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중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Fun경영 실천나서

- 생일자 축하연, 동호회 지원 등 시행 -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의 Fun경영이 시작되었다. 이는 연구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웃음이 묻어나는 연구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재미있는 조직이 일도 잘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이 모여 선물 증정과 다과회 등을 마련하는가 하면,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등 연구원간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동호회를 결성하여 연구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가능해 누구나 부담없이 활동할 수도 있다.

충발연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동호회 선발대회, 연구원 체육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Fun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또 하나의 가족! 충발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브라운 백 미팅 개최

- 해외선진사례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 줘 -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7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원간의 정보 공유와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개최키로 했다.

먼저 여섯 차례에 걸쳐 2007년 상반기 해외연수에서 얻은 분야별 선진사례연구 발표와 함께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과제 연구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브라운 백 미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충발연 관계자는 “브라운 백 미팅은 그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한 ‘10분 발언’ 시간을 통해 다져진 연구하는 조직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란? 점심식사를 곁들인 편하고 부담 없는 토론모임을 지칭하는 말로 보통 점심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의 봉투가 갈색 봉투 (Brown Bag)인 데서 유래됐다.

##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충청권 설명회” 개최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대전 · 충북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주최 -

2007년 9월 13일(목요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제 2단계균형발전정책 충청권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관련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 및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참석한 교수, 상공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지역대응 및 중앙-지방간 협력에 대한 토론을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각계각층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적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지역상공인,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지자체관련 공무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주최 –



2007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 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로 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보고,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유공자 훈·포장 수여하는 등 이틀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박람회가 치러졌다.

지난 6월 2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충남지역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충남의 9개의 지역혁신사업 중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선심의에서 수상한 4개의 사업(서산시, 선문대학교 R I S사업단, 선문대학교 충남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사업단,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원형특화산업인력양성사업단)들이 이번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성공사례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약 20여개의 균형발전 국제컨퍼런스 및 지역혁신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각계의 전문가들 및 학생, 시민들이 경청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사였다.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RHRD 패키지사업(R-pack)사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6일 R-pack사업 대상지역으로 충청남도과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과 충남RHRD센터는 “지역인력의 산업Mismatch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충청남도의 패키지사업은 지역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인적자원 수요공급 현황조사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준과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취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281백만원(국비 900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대학 131백만원)이 투자되며, 충청남도의 14개 대학이 참여한다.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인적자원 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 관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청년층 취업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중점사업 수료식

- 현역, 전역예정자 및 군인가족 인적자원개발 사업 -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RHRD)가 시행하는 2007년 충남 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 중 하나로 건양대학교가 진행하는 “현역, 전역예정자 및 군인가족 인적자원개발 사업-초·중·고등생 원어민 영어회화 과정” 수료식이 8월 24일에 개최되었다. 수료식에는 최병학 충남RHRD센터장 및 최홍묵 계룡시장,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교육생들에게 수

료증 교부 및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 하였다.

현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점사업은 지식기반사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비롯하여 지역특성화사업, 지역균형발전, 향토산업, 소외계층과 관련된 19개의 사업에 총 590백만원(국비 400, 도비 190)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 예상된다.

## “충청남도 물관리 방안 워크숍 개최”

— 물통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돼야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와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월 12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물 통합관리의 장기적 목표 및 방향제시’ 수

질총량관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의 ‘물 통합관리 및 수질총량관리제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수량과 수질관리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차년도 계획수립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유역관리를 위한 현재 추진현황 및 단계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센터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